

2022년 04월 24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29편 11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15(통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사무엘상 16장 6~13절(구약p.434)

6.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8.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9.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10.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13.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 말씀선포 / 하나님께 선택받는 사람

역사상 수많은 종류의 정치형태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훌륭한 제도는 역시 민주주의 정치 체제입니다. 민주주의를 Democracy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백성의 힘, 민중의 힘” 이란 뜻입니다. 민주주의는 백성들의 다수의 뜻을 존중하는 정치체제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결정과 선택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 1대 왕 사울을 폐하시고, 제 2대 왕 다윗을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선거를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하나님께 선택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알고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선택 원리는 무엇입니까?

1.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십니다.

- 본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

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가나안땅을 정복하게 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주시기를 구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에서 사람인 왕이 통치하는 왕정국가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은 겸손했지만 왕이 된 후 교만해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 받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로 인해 슬퍼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꾼을 준비하시고, 그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기름 부어 세우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 “기름부음”은 거룩히 구별하여 직임을 맡기고 하나님께 바침을 의미하는 성별예식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 성 이새에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보며 사무엘은 왕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에 치중하며, 그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주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십니다. 여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말은 히브리어 “이라 알렐바브”로서 이 뜻은 “그는 마음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진실성을 보시며,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를 보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선택할 때,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겉보다 그 속사람이 더욱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선택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부지런히 희생하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 본문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 모든 아들들을 다 제사에 청했습니다. 이새에게는 모두 여덟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에는 일곱 아들만 동행합니다. 이새의 일곱 아들이 다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들을 선택치 아니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도 막내 다윗은 형들에 비해 보잘 것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데려오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선택의 두 번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서열을 앞세우고, 기득권을 앞세웁니다. 이새는 다 성장한 누구 앞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자랑스러운 아들들을 선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랑스러운 아들들이 아니라 온 가족과 식구들을 대신하여 양을 지키고 있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일꾼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는 참 일꾼은 이처럼 땀 흘려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하여 봉사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일꾼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부지런히 희생적으로 일하는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지런히 희생적으로 일함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어 더욱 귀히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 본문 12~13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했습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는 말은 히브리어 “톱 로이”로서, 착하고, 선함을 뜻합니다. 그

뿐 아니라, “눈이 빼어나고” 라는 말은 히브리어 “예페 예이나임” 으로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음” 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할 때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선택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집사나 장로의 자격은 결국 믿음 총만, 지혜 총만, 말씀 총만, 성령 총만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총만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받들어 섬기는 일꾼이 되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신령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스가라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포행자요, 핍박자요, 훼방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로서, 모든 선배들보다 종교에 대한 열심히 특신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예수 앞에 굴복했습니다. 육신의 눈이 멀어 삼일동안 아무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삼일 간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 아나니아의 방문을 받고 안수 받을 때, 성령의 총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울” 이란 뜻은 “묻는다.” 는 뜻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큰 스승을 찾아가 인생의 문제를 묻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결국 사울이란 이름은 큰 스승을 의미하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 이 되었습니다. 바울” 이란 이름의 뜻은 “작다” 는 뜻입니다. 이렇게 “포행자, 핍박자, 훼방자” 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전파자가 된 것은 예수그리스도를 만날 뿐 아니라, 성령으로 총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성령 총만한 자를 그 오른손에 사로잡으시고, 면류관과 같이, 왕관과 같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 총만함으로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고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23(통355)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 폐 회 / 주기도문